

2009

가을호
예순돌



Korea Childhood Leukemia Foundation
재단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사랑이 있는
푸른 우리마을



www.kclf.org

지금 건강하십니까?



박 세 준

KCMC charity committee 위원장
한국양웨이 대표이사

요즘 TV나 신문에서 연신 화제가 되는 것은 '건강'입니다. 최근 한국사회의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더 이상 배고픔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더 삶의 질을 높이면서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몸에 좋다고 하면 무엇이든지 지나치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몸에 좋은 운동도 너무 심하게 하면 근육에 무리를 주기도 하고, 몸에 좋은 음식도 과하게 먹으면 배탈이 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래 보고서를 보면 아무리 권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데일리뉴스의 예방의학 전문가인 피터 한센 박사는 건강을 위한 보고서에서 아래와 같이 발표했습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3대 비결은 음식과 규칙적인 운동과 술, 담배, 과로, 수면부족 등 해로운 습관을 저버리는 것이다. 이 세 가지가 건강을 지키는 50%이다. 나머지 50%의 건강관리법은 '사랑'이다. 사랑을 하면 신체의 저항력이 강해져 병균을 물리치는 힘이 생긴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건강상의 문제이기도 하다. 사랑하면 몸은 건강해지고 마음은 행복을 느낀다."

사랑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받은 것이 감사해서 다시 나누고자 누군가에게 사랑을 주니, 그 사랑이 우리를 다시 건강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참 기적 같은 일입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사랑으로 인해 몸이 건강해지고 마음이 행복해 지는 법을 가르쳐 주어야 할 때입니다.

밝은 웃음이 얼굴 가득 있어야 할 아이들에게 소아암, 백혈병이라는 짐은 무척이나 크게 느껴집니다. 어린 나이에 병마와 싸우는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 '사랑'의 기적을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다국적기업최고경영자협회(KCMC)는 우리 아이들에게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사랑과 희망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고자 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는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관계자 분들과 사랑을 실천하는 모든 후원자 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끊이지 않길 기원합니다.

"민찬아! 밥 먹어라~."

요즘 해질 무렵 어둑해지면 베란다에서 외치는 소리입니다. 글썄 우리 민찬이가 바람이 났어요. 여자 친구와 바람났냐고요? ㅋㅋㅋ

무슨 '바~람'이나 하면, 작년까지만 해도 밖에서 친구들과 놀기 보다는 집에서 시간을 보내야만 했던 아이가, 올해 초등학교에 들어가더니 친구들과 시간가는 줄 모르고 밖에서 뛰어 노는 재미에 푸욱 빠졌답니다. 그런 민찬이를 보면서 '언제 아팠던가?' 라는 생각을 한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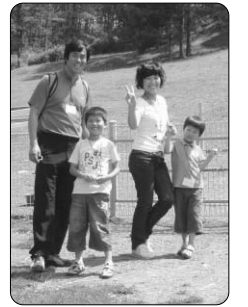
딱, 이맘때였네요.

민찬이가 16개월 되던 해, 「조직구증식후군」이란 병명으로 진단받고 골수검사할 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당시 교수님은 민찬이 동생을 뱃속에 가지고 있던 저를 보고 임신부는 보면 안된다며, 골수검사 하는 아이를 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검사를 마치고 나온 아이 얼굴을 봤을 때,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아이는 온 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엄마, 왜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해.' 하는 눈빛으로 저를 보며 엉엉 울었습니다. 우는 아이를 안고 저도 함께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이렇게 여리고 어린 아이가 힘든 항암치료를 잘 이겨낼 수 있을까 싶었는데, 다행히도 민찬이는 항암치료를 잘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그해 병원생활 중에 동생이 태어났습니다. 또래 친구들과 함께 놀 기회가 없었던 민찬이에게 동생은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가끔 싸우기도 하지만요.^^;

「오늘」이란 소중한 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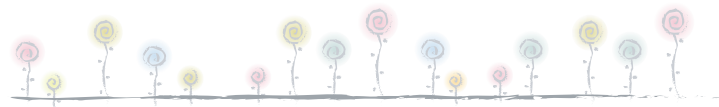
얼마 전 학교에서 '모자 독후감 대회'가 열렸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금상을 받을 수 있었는데 아깝게 은상이라며 민찬이에게 이런 재능이 있는 줄 몰랐다고 하였습니다. 3, 4학년 형, 누나들 보다 훨씬 대견스럽게 잘했다며 뿌듯한 미소로 민찬이를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비록 금상은 아니지만 상을 받을 때 박수소리와 함성소리는 금상보다 더 크고 우렁차다고 했습니다.^^*



학교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많았는데, 별 어려움 없이 생활하는 민찬이를 보면 무척 대견스럽습니다. 우리는 매일 매일을 살아가면서 「오늘」이란 선물을 소중히 생각하며 건강히 지내고 있습니다.

민찬이의 꿈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국가를 대표하는 축구선수가 되는 거랍니다. 부모로서 민찬이가 원하는 꿈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소아암 어린이 가족들도 「오늘」이란 선물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희망을 잃지 않고 열심히 치료하다 보면, 꼭 완치되고 원하는 꿈도 이룰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비운 뒤에 땅이 굳고, 희망의 무지개도 볼 수 있듯이...

* 민찬이는 2003년 6월 조직구증식후군으로 진단 받고, 2004년 10월 치료종결하였습니다. *



소아암 어린이 교육지원 관련 법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애인 공적 교육의 기반이 된 특수교육진흥법이 2005년 일부개정 되면서 소아암이 '건강장애'로 분류되어 특별한 교육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특수교육진흥법은 2008년 시행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으로 전면 개편되었고 이에 근거하여 특수교육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바, 건강장애 아동을 포함한 특수교육 대상자들과 관련된 법조항을 알아두는 것은 소아암 어린이들이 서비스를 제공받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제 3조(의무교육)

- ①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교육기본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하고, 제24조에 따른 전공과와 만3세 미만의 장애영아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 ☞ 현재 초등학교 및 중학교 과정은 의무교육입니다. 건강장애아동의 경우 유치원과 고등학교 과정은 무상교육이긴 하지만 의무교육은 아니었습니다. 이 조항은 의무교육 범위를 확대한다는 것이며, 만3세 미만 영아교육에 대해서도 무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무상교육의 범위는 입학금, 수업료, 교과용 도서대금 및 학교 급식비로 정해져 있으나 시·도교육청의 예산 범위 안에서 통학비, 현장체험 학습비 등도 무상으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 제 4조(차별의 금지)

- ① 각급학교의 장 또는 대학(「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그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가 지닌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전형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 교육기회에 있어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건강장애 아동들이 일반학급으로 가고자 할 때 입학 거부 사례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 제 9조(특수교육대상자의 권리와 의무의 안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5조 제1항 각 호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를 알게 되거나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2주일 이내에 보호자에게 해당 사실과 의무교육 또는 무상교육을 받을 권리 및 보호자의 권리·책임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 ☞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등의 해당 사실을 2주일 이내에 통보해야 할 뿐만 아니라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받을 권리와 함께 보호자의 권리 및 책임도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제 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진단·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다.

9. 건강장애 (시행령 10조)

-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지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 ☞ 본 조항에 의해 소아암 어린이들이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 제 17조(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및 교육)

-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를 해당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배치하여 교육하여야 한다.
 1.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2.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3. 특수학교
 - ☞ 통합된 교육환경에서의 배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 법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하는데 있어서 일반학교 일반학급을 우선순위에 두었으며, 각급학교의 장이 각종 시책을 시행함에 있어 통합교육의 이념 실현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통합교육의 실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 ②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할 때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정도·능력·보호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하여야 한다.
 - ☞ 이 조항에 의해 소아암 어린이들이 중학교 혹은 고등학교 입학 시 집과 가까운 학교로 배치될 수 있습니다.

• 제 25조(순회교육 등)

-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을 배치하여 순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 제 20조

- ② 순회교육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150일을 기준으로 하여 각급학교의 장이 정하되, 순회교육을 받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상태와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지도·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 30일의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
- ③ 교육장이나 교육감은 순회교육대상자를 위하여 의료기관 및 복지시설 등에 학급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 1977년 제정된 특수교육진흥법에는 순회교육에 관한 규정이 없었으나 1994년 전면 개정된 특수교육진흥법 제4조에 순회교육이 처음 규정되었습니다. 일반학교의 일반학급과 장애인 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가정, 치료기관 등에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하여 특수교육교원이 파견되었고 건강장애가 특수교육대상이 되면서 병원학교가 설립되고, 특수교사가 파견되고 있습니다.

삶의 열정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겠습니다.

저는 꿈 많고, 사람을 사랑하는 22살 여대생입니다. 20년 동안 포항, 게다가 '오천읍'이라는 농촌마을에서 쭉 살아왔기에 제 대학생활의 꿈은 인맥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입생 때는 다짜고짜 선배님들을 졸졸 따라 다니며 MT, 4.18구국대장정 등 다양한 대학문화를 즐겼습니다. 그리고 2학년 때는 경영학부 학생회 대외부장으로 활동하였으며, 올해는 학생홍보의 수석팀장을 맡아 홍보전략부와 미디어부 전체의 관계를 아우르는 위치에서 팀원들 간에 돈독한 우정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그루티기'라는 민중가요 소모임, '크림슨'이라는 축구 소모임 등을 하며 바쁜 대학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꿈꾸었던 대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남들보다 바쁜 대학생활을 즐기는 게 가끔은 꿈인 양 믿기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저는 2001년에 병실에서 항암주사를 맞으며, 병마와 싸우던 소녀였기 때문입니다.

진단을 받기 전까지 저는 부모님의 자랑이었습니다.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공부도 1등인 착한 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저에게 백혈병이란 진단은 청천벽력과 같았습니다. 제가 그 당시 꼬마였다면 아무것도 몰랐겠지만, 한창 예민한 사춘기 시절이었던지라 충격은 더욱 컸습니다. 저에게 고난을 준 신들이 야속하였고, '죽음'이라는 공포 때문에 눈이 통

통 붓도록 종일 울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께서는 항상 완치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셨습니다. 저를 위해 희생하는 부모님을 생각하며 그때부터 이를 악물고 나올 수 있다고만 믿었습니다. 단 한 번도 잘못되리란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저에게는 완치에 대한 강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완치까지의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6개월간의 병원생활로 1년 동안 휴학을 했기 때문에 후배들과 함께 학교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하지만 빨리 적응하기 위해서는 생각을 바꿔야 했습니다. '한 살 차이인데 그냥 친구해야겠다, 친구는 많을 수록 좋지.' 같은 반 친구들은 예상보다 저를 잘 따랐고, 행복한 학창시절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떡볶이 먹는 재미, 제주도로 간 수학여행, 야간자율학습시간 등 남들에게겐 평범한 학교생활이 저에게 하나하나가 행복이었습니다. 진단 전에는 점수 1점에 아등바등 하였지만, 욕심내지 않고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틈틈이 공부해서 성적은 상위권을 유지하였습니다.

진단을 계기로 제 인생의 가치관은 많이 변했습니다. 누워서 가만히 제 심장 뛰는 소리를 들을 때가 가장 행복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가족들과 맛있는 식사 한 끼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쉬는 시간에 친구들과 수다를 떨 수 있다는 것, 봉사



김은혜

1988년 1월 10일 생
2001년 1월 급성림프모구성백혈병 진단
2004년 1월 치료종결
현재 고려대학교 경영학부 재학 중

활동 후의 기쁨 등등..., 남들에게는 평범한 일들이 저에게는 무척이나 소중한 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것만큼 행복한 삶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늘은 저에게 다시 '건강'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대학생활을 하는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저는 사람을 사랑하는 제 성향에 맞추어 서비스 분야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특히, '승무원'이라는 직업에 매력을 느낍니다. 저는 그 나라의 이미지는 나라의 관문인 공항, 더 거슬러 올라가 그 나라 국적의 비행기 안에서 결정된다고 생각

합니다. 제 자신으로 인해 한국의 이미지가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언젠가 배우 김혜자 씨의 수필집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에서 빈곤국가의 참혹한 삶을 알게 되었는데, 마음이 너무 아파 평평 운 적이 있습니다. 그 때 이후 가슴 속에 해외봉사활동의 꿈을 항상 간직해 오고 있습니다. 저는 따뜻한 마음과 식지 않는 열정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몸소 실천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처럼 힘든 항암치료를 받는 환아들에게 완치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데 앞장서고 싶습니다.

나의 출근



눈을 뜨자마자 TV를 켜다. 잠을 깨기 위함이다.



세수를 한다. 이때 양치질은 하지 않는다.



집을 두지 먹물 수 있는 것들을 주워 먹는다. 이때 양치질을 한다.



커피를 끓인다. 커피는 다른 사람이 끓여주면 더 맛있다.



커피를 들고 책상 앞에 앉으면 출근 성공! 오전 10시 전에 출근하면 양호하다.



단, 다시 잠들지 않기 위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그림 소보이. sobogi.net

신종인플루엔자 A(H1N1) 지피지기! 백전백승!

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 감염관리실 JM. 최 소 은

신종인플루엔자 A(H1N1)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매년 가을, 겨울철에 유행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병원체입니다. 현재 유행하고 있는 신종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돼지인플루엔자에서 생긴 새로운 형태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입니다.

전파경로

감염된 환자의 호흡기 분비물(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 코와 입에서 배출되는 비말)을 통해 1~2m 이내의 사람의 코나 입, 눈으로 들어가서 감염됩니다.

잠복기

잠복기는 병원체가 몸에 들어온 시점부터 처음 증상이 나타나기까지의 시간을 말합니다. 신종인플루엔자는 대부분 2~3일, 최장 7일입니다. 따라서 해외여행을 다녀오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7일간 증상발생 유무를 감시하는 이유가 이때문입니다.

전파가능기간

증상이 나타난 날부터 보통 5~7일째까지 전파가 가능합니다. 소아청소년은 이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의심증상

발열(37.8°C) 증상과 함께 콧물/코막힘, 인후통, 기침 중 1개 이상의 증상이 있을 경우 신종플루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만약 12시간 이내에 해열제를 복용하였을 경우도 발열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치료법

소아암 어린이는 신종플루 의심증상 발생 시 타미플루를 하루에 2알씩 5일동안 복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항암제 복용은 중단해야 합니다. 집에서 치료 중에 열이 떨어지지 않고 지속되는 경우, 가볍게 숨을 쉬는 경우, 탈수, 경련, 과도한 졸음 상태를 보이는 경우에는 바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예방법

-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경우 코와 입을 막는다.
- 콧물이나 가래와 같은 것이 있을 경우 티슈를 사용한다.
- 사용한 티슈는 가까운 휴지통에 버린다.
- 호흡기 분비물, 오염된 물질과 접촉한 후에는 손을 깨끗이 씻는다.
- 호흡기 감염증상을 가지고 있는 환자와는 1m 이상 멀리 떨어져야 한다.

소아암 어린이에게 자신감을 선물하는 기업 Hi-MO

고객이 만족해야 저희도 만족합니다. 항암치료로 변화된 외모 때문에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찾아온 어린이들이 가발을 받아 긍정적인 변화를 보일 때, 자부심과 열정이 느껴집니다. 힘들지만 보람있게 일하고 있습니다.



(주)하이모의 황용실장은 하이모 직원들이 높은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자부심은 고객을 만족시키는 데에서 시작하는데, 하이모가 기업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는 의미있는 활동을 하고 있기에 이러한 자부심이 더 커진다고 합니다.

하이모는 2000년부터 소아암 어린이를 위한 가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항암치료로 머리카락이 빠져 괴로워하는 어린이의 사연을 접한 대표이사께서 이 일을 시작하시고 했고 이러한 활동이 지금까지 이어져 해마다 수십 명의 어린이들에게 가발을 제작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628개의 가발이 지원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사회공헌활동은 '사랑의 모발나누기'입니다. 그냥 버려질 수도 있는 머리카락을 모아 소아암 어린이

를 위한 가발로 다시 만드는 일입니다. 긴 머리를 짧게 자를 생각이 있다면 소아암 어린이를 위한 기증을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하이모의 사회공헌을 담당하는 이주희 대리는 사랑의 모발나누기를 통해 성숙한 나눔 문화의 확산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모발나누기 www.hi-mo.co.kr)

Q. 그렇다면 모발 기증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의외로 간단합니다. ① 파마나 염색을 하지 않은 굵고 건강한 모발 ② 길이가 25cm 이상인 모발이면 가능합니다.

Q. 기증한 모발이 소아암 어린이 가발로 만들어질까요?

물론 그렇습니다! 기증된 모발 중에는 간혹 사용하기 어려운 것도 있지만 하나도 버리지 않고 공장으로 보내 전문가에 의해 분류되고, 분류된 모발은 길이별, 색상별로 관리를 합니다. 모발은 모두 섞이는 거죠. 한 명이 아닌 더 많은 어린이들의 가발이 됩니다. 사랑의 모발나누기를 시작한 지는 3년 정도 되었는데, 지금까지 750여명이 모발을 보내주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자신감을 주고 싶다는 하이모의 성장이 기대됩니다.

To. 소아암 어린이들에게!

소아암 어린이들이 겪는 탈모는 일시적인 현상이에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항암치료가 끝난 후, 잘 먹고, 잘 뛰어놀고, 잘 자면 머리카락이 날 거예요!

From. Hi-MO

아이들과 함께한 2박3일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미소가 지어집니다. 우리 친구들도 밝은 미소를 잃지 말고 지금처럼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랍니다.



사회복지학과를 다니며 복지관에서의 자원봉사 경험이 많은 나에게 백혈병, 소아암,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은 모두 생소하고 어색한 것이었다. 하지만 센터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 미소로 반겨주던 선생님들의 얼굴을 보며 안도할 수 있었다. 아이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사회복지사이기 때문일까? 순수함을 느낄 수 있었다.

소아암 어린이의 형제들이 모인다고해서 아이들이 소극적이거나 힘든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걱정했었지만, 나의 기우와 달리 아이들은 명랑하고 밝았다. 2박3일 동안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따뜻한 행복을 느낄 수 있었다. 물론 캠프가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몸은 고단했지만^^;

캠프 참여 인원은 40명 안팎이었다. 알찬 구성과 고급화된 프로그램 내용은 아이들이 즐기기에 충분하였다.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는 기회가 적어 아쉽기는 하였지만, 조금이나마 내가 아이들에게 도움이 된 것 같아 아쉬움을 대신하였다. 회의시간에 선생님들과 대화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져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캠프는 생활을 함께하는 조(생활조)와 생각과 느낌을 나누는 조(칼라조)로 구분을 두어 다양한 친구들과 생각을 공유하게 하려는 노력이 엿보였다. 아이들과 함께 소아암에 대해 공부하면서 모던한 사실도 알게 되었다. 팀별 게임, 소시오드라마, 레크리에이션, 문화 체험, 물놀이 하나하나가 추억에 남을 만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돌아오는 길에 아이들과 헤어지는 것이 아쉬워 하루 더 진행 되면 어떨까하는 생각도 해보았다. 언제 또 이런 기회가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기억에 많이 남을 시간이었다.

* 침례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재학 중인 박은영 자원봉사자는 제9회 소아암 어린이 형제캠프 "우리가 만드는 세상"에 참가하였습니다. *



지원 결정 환아 (2009. 6 ~ 8)

이식비	김유림 (황문근육중/삼성서울병원/울산)	100만원
1 이식비 기금	5 사단법인 다국적기업최고경영자협회(KCMC)	
최현정 (금성림프모구성백혈병/서울대학교병원/경기)	한준희 (금성림프모구성백혈병/서울대학교병원/서울)	500만원
이승아 (골육종/국립암센터/인천)	김소정 (금성림프모구성백혈병/서울대학교병원/경기)	200만원
홍승주 (금성림프모구성백혈병/서울아산병원/서울)	우지수 (금성이표표현형백혈병/서울대학교병원/경기)	500만원
이경훈 (금성림프모구성백혈병/삼성서울병원/대전)		
정미선 (유양육종/원자력병원/부산)	6 삼성필하모닉오케스트라	
박은지 (금성골수성백혈병/서울대학교병원/부산)	박다솜 (만성골수성백혈병/서울성모병원/경기)	500만원
신하도 (금성림프모구성백혈병/서울아산병원/인천)		
박보현 (혈구탐식성조직구증/삼성서울병원/강원)	7 우체국한사랑기금(우정사업본부)	
최지은 (금성골수성백혈병/삼성서울병원/충북)	홍연주 (생식세포중/서울대학교병원/제주)	300만원
이서준 (상외세포중/삼성서울병원/광주)	김대성 (금성골수성백혈병/서울대학교병원/전남)	300만원
	윤태리 (수모세포중/서울대학교병원/서울)	300만원
2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박운서 (판코니빈혈/서울아산병원/경기)	300만원
전대열 (판코니빈혈/서울성모병원/부산)	이주한 (신경모세포중/삼성서울병원/경기)	300만원
김서희 (재생불량빈혈/최순전남대학교병원/전남)	박윤지 (금성골수성백혈병/서울대학교병원/강원)	300만원
	김경우 (원시신경외배연종양/삼성서울병원/서울)	2,223,727원
3 KT&G	박철용 (버킷림프중/삼성서울병원/대구)	300만원
한수연 (맥락종양/서울대학교병원/경기)	김정은 (신경모세포중/부산대학교병원/부산)	300만원
이승윤 (금성림프모구성백혈병/서울성모병원/부산)	재영민 (황문근육중/국립암센터/부산)	300만원
재활치료비	8 차카게살자(드림백도리클럽)	
강중윤 (골수이형성중/삼성서울병원/서울)	최태연 (금성골수성백혈병/서울대학교병원/서울)	300만원
장윤경 (생식세포중/서울대학교병원/부산)	권나영 (연부조직육종/국립암센터/서울)	800만원
조대호 (금성림프모구성백혈병/서울아산병원/경기)	박다솜 (만성골수성백혈병/서울성모병원/경기)	600만원
하승준 (뇌종양/동아대학교의료원/부산)	조현영 (금성림프모구성백혈병/울산신대학교병원/울산)	600만원
이진욱 (망막모세포중/서울대학교병원/서울)	전대열 (판코니빈혈/서울성모병원/부산)	500만원
신은주 (금성림프모구성백혈병/경북대학교병원/경북)	반주현 (수모세포중/서울대학교병원/경북)	200만원
이서준 (상외세포중/삼성서울병원/광주)		
김태한 (수모세포중/삼성서울병원/충남)	9 태진인터내셔널	
	김한솔 (황문근육중/서울아산병원/강원)	100만원
치료비		
1 2009 MBC '어린이에게 새생명'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	10 토달소프트뱅크	
임병호 (골육종/원자력병원/서울)	인경주 (금성림프모구성백혈병/삼성서울병원/부산)	500만원
이중민 (유양육종/서울아산병원/경남)	강민승 (수모세포중/세브란스병원/부산)	300만원
김우동 (골수이형성중/서울아산병원/경기)		
김지영 (골육종/국립암센터/서울)	11 한정민기금	
남예슬 (금성골수성백혈병/서울대학교병원/울산)	나대한 (골육종/서울대학교병원/전북)	200만원
윤우담 (연소형골수단구성백혈병/서울아산병원/경기)	유현승 (망막모세포중/서울아산병원/경기)	400만원
박근영 (금성골수성백혈병/서울대학교병원/서울)	한수연 (맥락종양/서울대학교병원/서울)	250만원
이지은 (금성림프모구성백혈병/서울성모병원/경기)	주재민 (금성림프모구성백혈병/서울대학교병원/서울)	500만원
최현정 (금성림프모구성백혈병/서울대학교병원/경기)		
연찬동 (수모세포중/서울대학교병원/경기)	12 한국마사회	
복윤진 (혈구탐식성조직구증/서울대학교병원/대전)	김희연 (금성림프모구성백혈병/서울아산병원/전북)	600만원
노혜진 (신경모세포중/서울아산병원/경남)		
정미선 (유양육종/원자력병원/부산)	13 한국남동발전	
주서연 (신경모세포중/서울대학교병원/서울)	김용부 (금성림프모구성백혈병/서울성모병원/대전)	월 32만원
신하도 (금성림프모구성백혈병/서울아산병원/인천)		
이효림 (뇌간신경교종/충북대학교병원/충북)	14 SBS(서울대학교병원 지정기탁)	
김효진 (금성골수성백혈병/서울대학교병원/경기)	김현석 (금성림프모구성백혈병/서울대학교병원/서울)	3,033,740원
김한솔 (황문근육중/서울아산병원/강원)		
최지은 (금성골수성백혈병/삼성서울병원/충북)		
	외래치료비 신규	매월 각 15만원
2 그랜드코리아레저	김재욱 (재생불량빈혈/서울성모병원/서울)	
이승훈 (만성골수성백혈병/서울성모병원/서울)	박희수 (금성림프모구성백혈병/서울성모병원/경기)	
	이동주 (재생불량빈혈/원안대학교병원/경기)	
3 금호아시아나	홍재현 (금성림프모구성백혈병/서울성모병원/경기)	
이예주 (금성림프모구성백혈병/인하대병원/인천)	이승윤 (금성림프모구성백혈병/서울성모병원/부산)	
김현석 (금성림프모구성백혈병/서울대학교병원/서울)	김기범 (악성림프중/서울성모병원/경기)	
전현우 (전신성연소성황색아종/영남대학교의료원/경북)	김도연 (신경모세포중/서울아산병원/경기)	
	김해진 (금성림프모구성백혈병/서울성모병원/충북)	
4 메리츠인재상보림	박운서 (판코니빈혈/서울아산병원/경기)	
양예원 (금성림프모구성백혈병/최순전남대학교병원/광주)	배하은 (신경모세포중/국립암센터/경기)	
최대연 (금성골수성백혈병/서울대학교병원/서울)	이연성 (재생불량빈혈/충북대학교병원/충북)	
권나영 (연부조직육종/국립암센터/서울)	임재연 (망막모세포중/서울대학교병원/제주)	
	주현서 (혈구탐식성조직구증/삼성서울병원/대구)	

소아암 어린이들의 든든한 후원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9. 6. 1 ~ 8. 31

신규 후원자 소개

1) 정기후원

강병철	고진숙	김나경	김명선	김민경	김보람	김성희	김성민	김소희	김수영	김양수	김양희	김영은	김용민	김영주
김인국	김창호	김정자	김정희	김주호	김지현	김지희	김현정	김희철	문순영	문종완	문진희	박경록	박상훈	박소영
박준우	박진영	백민숙	사성호	송건호	송예진	송윤경	송호은	심재연	양재혁	오세하	오이세	오형근	우선정	원종성
원현호	유미영	유 옥	윤영상	윤태준	윤희정	이민우	이세민	이승은	이재향	이정주	이주한	이재능	이태운	이혜은
임덕빈	임준성	임지영	장미화라	장성자	장윤권	장희정	전경배	전정주	전진기	전학주	전희봉	정구일	정동환	정선영
정양기	정재욱	정지혜	정혜진	제영지	조명훈	조승현	조은성	조은우	조진우	조후남	조미희	채서윤	최경임	
최남훈	최철제	최민석	최윤석	최재원	최중성	한광현	한상기	한철희	홍승연	홍현진	황영미			

2) 일시후원

경남이	고광영	고홍만	구석희	권영순	기부금	김경석	김미혜	김선민	김성덕	김재은	김태용	김학수	박경철	박세진
박익선	서윤상	양경아	양창호	엄상원	윤연정	이민재	이봉순	이상백	이형준	정태숙	조인강	진선희	천한석	최순용
홍정숙	후원인	희망	JENN	국제폰타서울6클럽	기부금의명	오담빈유빈								

사랑의 모음터

1) 후원물품

김원희 치킨	문진성 물티슈, 킨타울	박윤미모 방울토마토	박성목모 감자20kg
삼성생명 화단조성비 지원	이단비모 양파(10kg) 마늘(5kg)	이효정모 포도1상자	정재락모 복숭아 3박스
정혜영 포도잼(1kg) 딸기잼(1kg)	하승문모 음료수 1박스	홍연주모 동화책, 완구류	SK텔레콤 프로그램 활동비 지원

2) 헌혈증서

김소현 (1)	박상욱 (2)	박희경 (24)	심종철 (51)	유미영 (7)	이동원 (3)	이지영 (7)
최선영 (2)	최영록 (12)	홍다래 (3)	남기용정의철김태진 (18)	서울대학교 전기공학부 (10)	신한은행 (424)	

※ () 는 기증한 헌혈증 매수입니다.

재단 홈페이지(www.kclf.org)가 새로운 모습으로 개편되면서, 정기후원자를 위한 '나의정보' 란이 신설되었습니다. 이곳을 통해 보다 쉽게 후원정보를 확인, 변경할 수 있습니다. 후원자 분들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 국민은행 : 001-01-2353-890
- 농 협 : 029-01-176943
- 신한은행 : 140-000-762725
- 우리은행 : 112-04-112571
- 우 체 국 : 012989-01-003327
- 하나은행 : 144-121835-00105

예금주: (재)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한사랑의집에서는



서울 우체국 한사랑의집

즐거운 치킨파티

지난 김현중 퍼펙트의 후원금 전달 차, 서울 한사랑의집을 방문했던 김원희 후원자가 심터에 있는 가족들을 위해 치킨을 선물해주었습니다. 아이들과의 약속 때문에 멀리서 오면서도 항상 기쁜 마음으로 치킨배달을 자청해준 김원희 후원자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SK텔레콤과 함께하는 '조물락조물락 내가 만드는 세상'



SK텔레콤의 NI전략본부와 연계되어 매달 진행되고 있는 체험프로그램 '조물락조물락 내가 만드는 세상'

벌써 클레이점토를 활용한 액자 만들기, 비누 만들기, 폼아트, 비즈공예까지 다양한 주제로 아이들의 솜씨를 마음껏 뽐낼 수 있었답니다. 특히, 평소 치료 때문에 함께 어울릴 수 없었던 형제, 자매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라 더욱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즐거운 수업 기대할게요~!

* 본 행사는 SK텔레콤 후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부산 우체국 한사랑의집

대학체험 '나의 꿈을 찾아서'



지난 7월 21일 부산에서는 올해로 4회째 대학체험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동아대학교 의학과, 동주대학 미용계열, 푸드스타일리스트 체험을 통해 다양한 직업의 세계를 체험해 보고 직접 경험해볼 수 있었던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아이들은 호기심을 보이며 각자 자신에게 잠재되어 있던 재능을 한껏 펼쳤습니다. 꿈을 향해 한발 내딛는 순간의 짜릿함을 맞본 친구들의 표정에는 행복감이 넘쳐났습니다. 이 날의 의사, 스타일리스트, 푸드스타일리스트의 모습처럼 언젠가는 멋진 사회인으로 발돋움할 그날을 기약하며~ 파이팅을 외칩니다.

* 본 행사는 메리츠화재 후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전남 우체국 한사랑의집

행복한 가족 나들이!



지난 6월, 임실치즈마을과 회원산 자연휴양림을 다녀왔습니다. 출발 시간에 정확하게 모인 가족들에게 작은 선물을 하고 싶어 담양의 명소 '메타

세콰이어 길'에 잠시 멈춰 신선한 아침공기와 가족 산책을 선물했습니다. 임실치즈마을에서의 맛있는 점심식사와 간질간질 경운기타기, 재미있는 치즈 만들기, 송아지 우유주기, 신나는 썰매타기는 우리의 기분을 두 배로 업! 업! 시켜주었습니다. 회원산 자연휴양림에 도착하여 아이들과 부모님은 잠깐 동안 신나는 이별(^^)을 해야 했습니다. 부모님 두 분은 함께 손잡고 숲 해설가로부터 나무와 자연에 대해 이야기를 들으며 오랜만에 여유로운 산책을 했으며, 아이들은 곤충에 대해 배우고, 숲속나무를 이용해 뱅글뱅글 팽이, 예쁜 목걸이, 핸드폰걸이 만들기 체험을 하였습니다. 바쁜 일정이었지만, 너무나 행복하게 잘 참여해 준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구 우체국 한사랑의집

1318 한사랑 1박2일



지난 7월 30일부터 1박2일간 소아암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 및 대인관계능력 향상을 위한 집단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친구들과 1박2일을 함께 생활하면서 자신의 장점과 강점을 발견하고 서로를 지지해 주었습니다. 아름답고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한 친구들에게도 행복한 추억이 되었길 바라며, 다음에도 멋진 친구들과 1박2일을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신촌 우체국 한사랑의집

신촌 한사랑카페 탄생!

신촌 한사랑의집 마당에 향기로운 꽃향기가 그윽해졌습니다. 화색빛 콘트리트 담은 미색의 깨끗한 담장이 되었고 자연을 담은 아름다운 화단에는 예쁜 꽃들이 활짝 피었습니다. 우리는 한사랑의집 마당을 '신촌 한사랑카페'로 명명(?)했습니다. 신촌 한사랑카페의 탄생으로 한사랑의집 가족들의 생활도 마음도 변하였습니다. 어떻게 변했나구요? 이렇게요!!



❖ Scene① 마당 활용

Before / 마당은 대문을 가기 위한 통로, 체류시간 1초. 우리는 지나갈 뿐이고~.

After / 마당은 자연을 느끼는 공간, 체류시간 평균 5분. 꽃들을 바라본다. 허브를 쓰다듬고 향기를 맡아 본다. 외래 다녀오는 길, 시장 다녀오는 길, 잠시 앉아 땀을 식힌다.

❖ Scene② 아침에 일어나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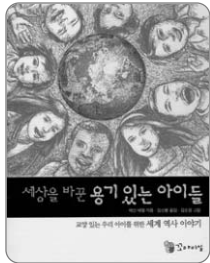
Before / 잠에서 깨면 우선 TV를 켜다.

After / 잠에서 깨면 우선 화단을 내려다본다. 그리고 내려와 물을 준다. 너나 할 것 없이.

* 화단은 삼성생명 후원과 자원봉사로 마련되었습니다. *

「세상을 바꾼 용기 있는 아이들」

소개의 글



무게감이 느껴지는 제목과는 달리, 책 표지에는 지구를 둘러싸고 아주 환하게 웃고 있는 마냥 순진해 보이는 세계 어린이들의 모습이 가득합니다. 마치 엄마가 아이에게 차분하게 들려주는 이야기 형식으로 꾸며진 이 책은 전 세계 21명 어린이 영웅들의 놀랍고도 감동적인 실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책 속의 주인공들은 나이는 어리지만, 시대와 공간을 뛰어넘어 모두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용감하게 싸웠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체험을 바탕으로 그들은 자유, 권리, 평화, 정의, 폭력 없는 세상을 위해 아주 큰 목소리로 많은 사람들을 깨우치고 감동시키고 있습니다.

책의 내용

알렉산드라 스콧은 갓난아기 때부터 많이 약한 아이였습니다. 첫 번째 생일이 지났을 때 '신경모세포종'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렉스는 자신의 병이 치료받기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실망하지 않고, 오히려 의사선생님들이 치료 방법을 찾도록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겨우 4살 밖에 되지 않은 알렉스는 레모네이드를 팔아 소아암 치료 기금을 모으기 시작했고,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동참하여 (레모네이드 판매대 캠페인)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 외 파키스탄의 어린이 노예 반대 투사인 13살의 이크발 마시흐, 인종 차별에 맞섰던 15살 소녀 클로데트 콜빈,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 발명가 루이 브라이, 의족으로 된 <희망의 마라톤>의 영웅 테리 팩스, 캄보디아의 평화 투사 안 촌 폰 드, 흑인 노예를 도운 '지하 철도의 대통령' 리바이 코핀, 학생의 학교 내 표현의 권리를 주장한 소녀 메리 베스 텅커, 아버지 대신 전쟁에 나간 고대 중국의 소녀 화무란, 아랍인과 유대인의 화해를 위해 헌신한 평화의 순교자 아셀 아슬레, 에이즈에 걸린 어린이들의 권리 수호자 라이언 화이트, 노예 제도 반대 운동가 달리 초우더리, 14세의 나이로 미국에 최초로 갔던 일본인 만지로 나카하마의 이야기 등이 실려 있습니다.

저자 소개

- ▶글_ 제인 베델
역사 소설과 어린이 논픽션을 쓰는 전업 작가로, 현재 미네소타 주 햄린 대학에서 창작 공부 <세상을 바꾼 용기 있는 아이들>은 제인이 처음으로 쓴 어린이 논픽션
- ▶그림_ 김순금
일러스트레이터 프리랜서로 한국출판미술협회와 어린이문화진흥회 회원 작품 (15소년 표류기-삼성 세계 명작 고향년), <장보고-어린이중앙 인물 이야기>등 다수



사랑이 모이는 곳

▶ 현대엘리베이터 후원금 전달



현대엘리베이터 임직원이 부서별로 모금한 후원금을 소아암 어린이를 위해 전달해 주었습니다. 모금에 함께 해준 현대엘리베이터의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 외환은행나눔재단 기금 전달



외환은행나눔재단은 암 치료 후 후유증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아암 어린이를 위한 '재활치료비' 지원과 함께 심터를 이용하는 소아암 어린이의 온라인 학습을 위한 컴퓨터를 지원하였습니다. 소아암 어린이를 위한 나눔활동에 함께 해준 외환은행나눔재단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 KCMC 후원금 전달



국내 다국적기업 최고경영자들의 모임인 KCMC(다국적기업최고경영자협회)는 소아암 어린이의 치료비와 소아암 완치자 '자기성장 프로젝트'를 지원합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하는 다국적기업의 최고 경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 (주)단타이핑코리아 후원금 전달

(주)단타이핑코리아에서는 지난 5월 '신(新)나는 메뉴 출시'를 기념하여, 5월 한달동안 신(新)메뉴 판매금액의 3%의 금액을 적립하여 재단으로 전달해 주었습니다. 소아암 어린이들의 완치를 위해 지속적인 사랑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주)단타이핑코리아 임직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새봄유치원 어린이들의 소아암 친구 돕기 바자회

새봄유치원에서는 올해도 어김없이 소아암 어린이들을 돕기 위한 '새봄바자회'를 열었습니다. 2001년부터 시작된 새봄바자회를 통해 지금까지 총 2,844,070원이 모금되었습니다. 새봄유치원 어린 친구들의 사랑나눔은 언제나 '현재진행형'입니다. 해마다 바자회를 주최하는 새봄유치원과 동참해 준 학부모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 헌혈증서 전달



(주)신한금융그룹임직원들은 7월 3일, '헌혈을 통한 사랑 나누기' 행사를 통해 모아진 헌혈증서 424매를 전달해 주었습니다. 서울호서전문학교에서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교내 호서헌혈캠페인을 통해 모아준 헌혈증서 175매를 재단으로 전달해 주었습니다. 정성껏 모아 기증한 헌혈증서는 소아암 어린이들의 완치를 위해 잘 사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이 모이는 곳

▶ 행복한 가족! 소중한 추억!



2009년 총 40가족에게 특별한 시간을 선물할 '행복한 가족! 소중한 추억'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이들의 치료기간 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가족여행이 쉽지 않기에 선정된 소아암 어린이 가족들은 소중한 가족 추억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 본 사업은 MBC어린이에게새생명을 후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으로 진행됩니다. *

▶ 소아암 완치자 희망장학금 전달



소아암 치료를 끝내고 대학(원)에 재학 중인 완치자에게 희망장학금을 전달하였습니다. 전달식에서 자랑스러운 9명의 완치자들은 자신의 꿈, 미래, 사랑하는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는 치료를 종결하고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치료종결자 학생도 참석하여 '공부비법(?)'에 대해 배우는 뜻깊은 시간도 가졌습니다.

* 본 행사는 MBC어린이에게새생명을 후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 제9회 소아암 어린이 형제캠프 '우리가 만드는 세상'

지난 8월 18일부터 20일, 2박3일간 경북 경주에서 '우리가 만드는 세상' 형제캠프가 전국 각지에서 모인 37명의 소아암 어린이 형제가 참가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아



픈 형제가 있다는 공통점으로 아이들은 서로를 의지하고 격려하며 다독이고 있었습니다. 놀이도 프로그램도 열심히 참여하는 아이들의 모습에서 우리 소아암 어린이 가족의 밝은 미래를 볼 수 있었습니다.

* 본 행사는 메리츠화재 후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 2009 자기성장프로젝트

소아암 치료종결 청소년들의 독립심 증진, 자신감 향상, 그리고 자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된 프로젝트 '경계를 넘어 나를 찾다'가 지난 7월 22일부터 24일까지 강원도 양양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첫째 날, 참가자들은 캠프장에 도착하여 텐트를 치고, 요리를 직접 만드는 등 평소 하지 않던 일들을 하었는데 태어나서 설거지가 처음이라고 하여 우리를 놀라게 한 친구도 있었습니다.

둘째 날, 아이들은 스스로 배낭을 꾸려 나침반과 지도를 가지고, 등산과 계곡 트레킹 체험을 나섰습니다. 무척 힘든 시간이었지만 아이들은 오히려 서로를 잡아주고, 끌어주고, 서툰 아이를 끝까지 기다려주는 등 서로를 배려하는 방법을 배워 나갔습니다.

마지막 날, 다행히 비가 그쳤고, 아이들은 홀로 숲에서 자기만의 성찰을 가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헤엄집이 아쉬워 연락처를 주고받고, '소곤소곤! 재잘재잘!' 이야기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2박3일 동안 아이들은 새로운 경험을 통해 또 다른 자신을 발견하고 스스로를 격려할 수 있었습니다.

* 본 행사는 KCMC 후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2009 자기성장프로젝트 '경계를 넘어 나를 찾다'

[첫째날]



오프닝! (서먹서먹)
낯선 장소에 낯선 우리들이 모였다. 처음 보는 동료들. 아직 캠프가 앞선다.



캠핑! (WOW! 신난다!)
텐트를 만들었다. '너, 이제 보니 꽤 관능은 녀석인걸!'

[둘째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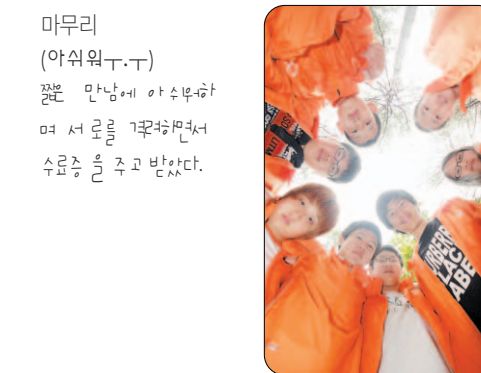


독도법 배우기 & 숲 트레킹 (목표를 향해 고고~!)
지도 보는 법을 배우고 나침반을 들고 숲으로 들어갔다.



계곡 트레킹 (시원한 계곡♡)
서로를 잡아주며, 계곡을 건넜는데. 엄청 힘들지만, 엄청 재미있었다.

[셋째날]



마무리 (아쉬워~.)
짧은 만남에 아쉬워하며 서로를 격려하면서 수료증을 주고 받았다.

참/가/후/기

나의 소중함, 남의 소중함. 일상 생활에선 생각할 수 없었던 일들을 경험하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내가 먼저 적극적으로 마음의 문을 열어갈 겁니다.



마 / 음 / 품 / 경

‘동생은 어떤 병이야?’

‘백혈병이요.’

‘나도 예전에 동생처럼 백혈병이었어.’

‘그런데 지금 다 나아서 대학교에 다니고 있대~.’

‘[미소 번짐] 정말요? (혼잣말) 그럼, 우리 동생도 나을 수 있겠네.’

‘근데 선생님 뭘 샅이예요?’

- 2009 형제캠프 ‘우리가 만드는 세상’에서
완치자인 자원봉사자와 초등학교 2학년 소아암 어린이의 형제가 나눈 대화 중 -